

전남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4개 분야 특정감사 통해 전처리시설 등 제안 주목

CCTV-드론 연동 모니터링·팽생이모자반도 자원화

전남도가 골칫거리였던 해양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전처리 시설 구축 등을 통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해양플라스틱 ▲폐각 등 수산 부산물 ▲폐어구 등 침적폐기물 ▲팽생이모자반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자원화 특정감사를 펼쳤다. 감사

는 발생·예방, 수거·운반, 처리·활용, 기타 분야로 나눠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해양플라스틱 분야’에서는 그동안 육상에서 버려지는 해양폐기물(연간 1만t 이상, 전체 약 40%)을 과소 평가해 대책 마련이 소홀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5대강 위주로 설치된 3곳의 하천폐기물 차단막 외에 도내 지방하

천 556개 중 폐기물이 빈발하는 3곳에 하천폐기물 차단막을 시범 설치·운영 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시·군별로 구축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에 ‘드론’을 연동한 영상시스템을 추가해 해양폐기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도서지역은 정화선 건조대신 연륙·연도교 완공으로 활용성이 떨어진 차도선 66척을 임차해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산부산물 분야’의 경우 전남도가 2020년 기준 연간 7만6천t의 폐각 발생량 중 1만9천t(25%)만 재활용 중이고, 5만7

천t(75%)은 생산지 주변에 무단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야적 폐각의 악취 저감을 위해 유용미생물(EM)을 이용한 냄새 저감시설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침적폐기물 분야’는 해양폐기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적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수중 음파 탐지기, 인양을 예인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경기도 사례와 최근 소개된 ‘수중드론’ 활용기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또 조업중 인양폐기물 수매사업(수협 위탁)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3~6개월)에 종료돼 조업 중 수거된 폐그물 등이 다시 바다로 버려지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수매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수매 시 매입 기준을 부패에서 무게로 변경하면 동일 예산으로도 연간 1천251t의 인양폐기물을 추가 수매 가능함을 확인했다.

소각·재활용이 곤란한 해양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팽생이모자반 분야’는 중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밀려와 양식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팽생이모자반을 바닷가에 밀려왔을 때만 수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자원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상집하장 25개소를 설치 후 해안가에 도달하기 전 바다에서 팽생이모자반을 선제적으로 1천608t을 수거·처리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진도군 사례를 소개하면서 타 시·군에 팽생이모자반의 효율적 해상수거 방식을 제안했다.

또 팽생이모자반을 노지살포를 희망하는 농지에 제공하고 친환경퇴비로 활용하며 나아가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주문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해양폐기물은 그동안 단순한 폐기물로 취급받아 처리하는 데만 집중했으나 특정감사를 통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남도와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분야의 특정감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영호남 달빛동맹 장애인체육 교류행사 1일 오후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달빛동맹 장애인체육 교류’ 행사에 참석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대구 장애인체육회 선수단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인들의 우호증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이번 행사는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광주시 제공>

어려운 이웃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다짐

도자원봉사자 대회…유공자 포상·우수 사례 발표

전남도는 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2 전남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어 어려운 곳이 있으면 어디든 나타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포상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전남을 잇는 힘, 자원봉사에 다 있다!’를 주제로 오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도의회 의장, 김형석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돌아봤다.

특히 모두가 힘들었던 올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놓지 않았던 97명의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지사 표창과 포상을 받았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기업상을 실천하는 8개 기업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감사패를 받았다.

또 해당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한 시·군 센터 평가를 통해 담양군에 최우수상, 순천자원봉사센터와 해남군에 우수상, 여수시와 고흥군에 장려상을 수여했다.

부대행사로 자원봉사 사진전과 식전 문화공연, 봉사활동 영상 상영과 자원봉사자 사례발표(이그나이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순천 척척봉사단 남미애씨의 ‘엄

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잇다’는 주제의 생활체감형 봉사활동 발표도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엔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극복했다’는 뜻을 담아 ‘하나 되어라’는 노래를 합창해 화합과 감동을 자아냈다.

김영록 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쌓아 올린 도민에 대한 신뢰와 결속력이 전남의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전남만의 다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와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데 원동력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겨울철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광주시는 1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주요 건축 공사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무등야구장, 빙고를 창업스테이션 등 대형 건축공사 현장 5곳과 중소 규모 건축공사 현장 등이다. 특히 안전 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폭설 대비 비상용제설 자재·장비 확보 여부 ▲난방·전열기구 용접작업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기작업 시 화재감지사 배치 여부 ▲폭설·강풍 등을 대비한 가설구조

물 전도, 침하 예방관리 등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김일용 종합건설본부장은 “예방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설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전남개발공사, 남악 오룡지구 88필지 공급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5만410㎡ 실수요자 전자입찰

전남개발공사는 1일 “무안군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토지 88필지를 이날부터 일반 수요자 대상 경쟁입찰·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40필지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41필지 ▲주차장용지 7필지다.

입찰은 오는 12일부터 3일간 온비드 입찰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개찰은 오는 15일 예정이며 계약 체결은 오는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오룡지구 마지막 남은 물량으로 남창천과 수변공원을 마주하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 4~5층 높이로 제1·2층 근린생활시설 외에 유치원,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창천의 조망과 학교인접 도보생활권이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는 주거 전용으로 2층 이하 2세대까지 주거 가능하며 주차장용지는 저층부에 건축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1~2층 근생 및 운동시설 등이 가능하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인 일반 실수요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1면 ‘사랑의 온도탑’서 계속

캠페인 목표 금액은 광주 48억4천만원, 전남 99억2천만원으로 광주에선 기아 오토랜드 광주(1억7천650만원)와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5천20만원)가, 전남에선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3천만원)가 첫 기부자로 나서며 온정을 보였다.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심심일만 작은 정성이 모여 희망 가득한 아름다운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며 “광주를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희망2023나눔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나눔의 온기를 전해주시서 감사하다”며 “지속가능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나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정 시장은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가 떠오

르는 순간”이라며 “국가와 행정이 채워야 할 우리 사회의 빈틈을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모금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빛이 되고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희망메시지에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의 더 큰 관심이 절실하다”며 “온정 가득한 도민의 따뜻한 손길을 모아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지혜로 살기 좋은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전남본부는 모금된 성금을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광주·062-222-3566, 전남·061-902-6800)로 하면 된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역앞 양한방용 병원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 6층연건평1,345㎡
○ 병실25개,70베드,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쿨러,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인수와 동시에 빈몰 영업가능
[급매] 27억5,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